

한국 회사의 탄생

전우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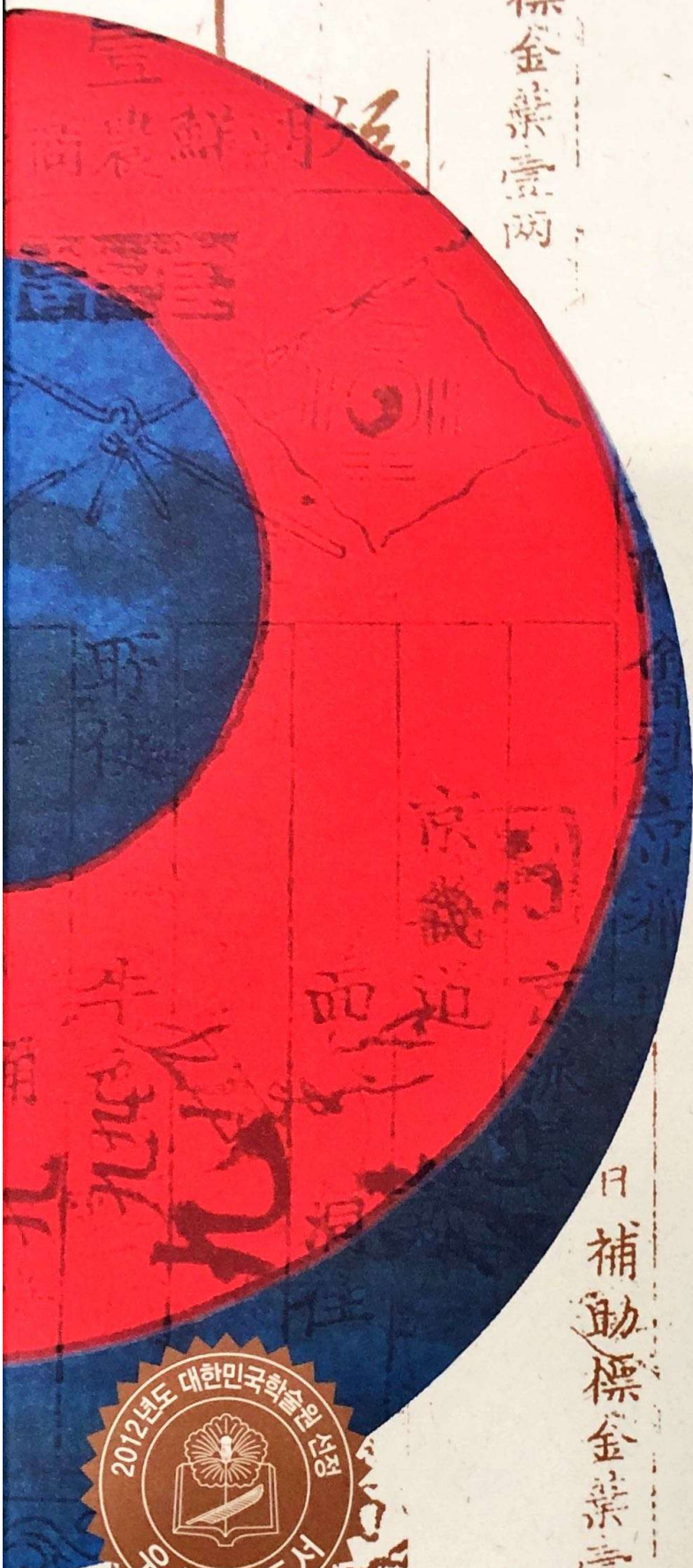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日補助標金葉壹兩

補助標金葉壹兩

134



전우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가톨릭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은 깊다』 『현대인의 탄생』
『동아시아 서양의학을 만나다』(공저)
『서울상업사』(공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태극기: 고종이 미국인 외교 고문 데니(Owen N. Denny)에게 하사
한 태극기로 '데니 태극기'라고도 한다. 1880년대 중반에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이며, 당시 국적선(國籍船)에 게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험증권: 건양 2년(1897) 6월 대조선보험회사 발행 보험증권.(국
립민속박물관 소장)

436



한국 회사의 탄생

한국 회사의 탄생

초판 1쇄 발행 2011년 8월 5일

초판 3쇄 발행 2018년 6월 10일

지은이 전우용

펴낸이 성낙인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등록 제15-3호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대표전화 02-880-5252 | 팩스 02-888-4148

홍보마케팅팀(주문 상담) 02-889-4424, 02-880-7995

이메일 snubook@snu.ac.kr

홈페이지 www.snupress.com

ISBN 978-89-521-1218-7 93900

© 전우용 · 2011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01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 회사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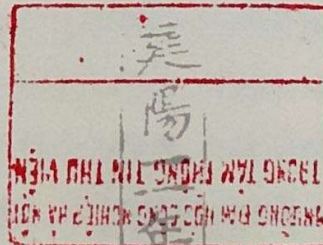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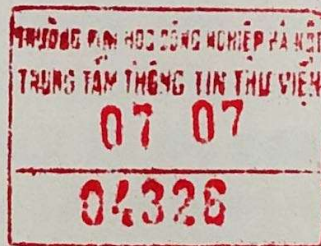
전우용 지음

補助標金葉壹兩

美凡

陽二年六月 日

京畿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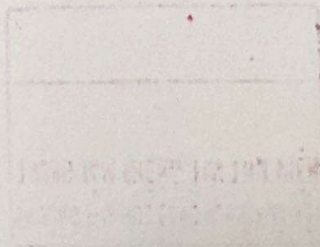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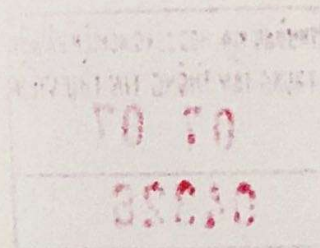


陽二年六月 日 補助標金葉壹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The Birth of Korean Companies

Chun, Woo-yong



학문을 한다는 것은, 특히 시간을 다루는 역사학을 한다는 것은,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작살로 잡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물고기가 보이는 지점을 향해 던진 작살은 대개 물고기가 지나간 빈자리에 꽂히기 마련이다. 숙달된 사람이라면 물고기의 이동 방향을 짐작하고 던지겠지만 그 예상이 꼭 맞으란 법도 없다. 문제를 의식한 뒤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고심참담하여 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을 때에는, 그 문제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내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 들어가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된다. ‘격동의 시대’ 아닌 적이 언제 있었겠는가마는,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학계, 특히 근대사학계에는 여러 차례 격랑이 일어났다. 1980년대에는 식민사관의 극복과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무겁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당대의 엄혹한 현실에 맞서 역사학의 사회적 실천 방안을 찾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다. 두 과제 인식은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험했다. 사적 유물론의 관점이 소생했으며, 한국 사회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양상을 규명하고 근대 민족운동을 이념과 방법의 수준에서 정밀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런데 역사학의 실천성을 주창한 학자들이 당시로서는 대개 젊은 연구자들이었던 관계로, 이론이 지나치게 실증에 앞서는 문제가 있었다. 1980

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론과 실증을 결합한 연구 성과들이 본격 도출되었으나, 그 직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자본주의 이후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중운동사 연구나 사회성격 논쟁의 동력은 크게 약해졌다. 대신 주로 경제학자들이 1970년대 이후 한국사 학계가 진전시켜온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창했다. 대중소비시대로 진입한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학문 이론과 정치 담론 사이를 오갔고, 비판과 반비판 역시 학문 영역에서 엄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감이 있었다. 그보다도, 뒤이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이 한국사학계에 밀어닥쳤다.

내가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논쟁의 시대였던 1980년대를 그 논쟁을 이해하려 애쓰는 데 보내고, 그 치열했던 논쟁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세계사의 지각 변동 앞에서 중단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때였다. 식민지 경험의 긍정적 유산을 강조하는 논리가 공공연히 제기된 직후이기도 했다. 이는 내가 쌓아왔던 이론적 지식들이 해체되는 경험이기도 했다. 논쟁에 쟁점을 더하기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실증의 토대를 넓히는 일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래 전부터 내 자신이 설정한 숙제도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 대학은 급격히 팽창했고 연구자의 층도 두터워졌다. 학문의 전문화와 세분화 경향이 가속화하면서 권위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전문가라는 말이 일반화했다. 한국 근대사는 조선 후기, 개항기, 일제강점기가 서로 다른 연구 영역으로 분화하여 통합된 역사상(歷史像)을 잃었다. 조선 후기사 연구는 사회 내부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면모를 부각시킨 반면, 개항기 연구는 조선 후기 발전의 성과와는 대체로 단절되어 외압의 특질을 해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일제강점기 연구 역시 내재적 발전 과정의 왜곡, 또는 본격적 근대화의 시작이라는 단절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었다.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이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통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근대적 기업 조직인 회사는 이 숙제를 해결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근대는 회사의 시대였다. 화폐, 현물, 토지, 건물, 증권, 지식 등 온갖 물질과 비(非)물질로 현상(現象)하는 자본은 회사라는 '법인격'을 통해 자기 의지를 구현한다. 현대의 회사는 자본의 결합체이자 인간의 조직체이며 지식의 집적체다. 회사는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이 뿌리내린 토양 자체를 자본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제 회사는 자본주의의 아이콘이다. 회사를 빼고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 회사의 탄생과 초창기 역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태였다. 선배 연구자들이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사료의 한계 때문이었다. 단편적인 사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 논지의 골격을 세울 수 있는 계통적인 사료가 없었다. 한참 고민하다 '사료 없이 역사 없다'는 오래된 명제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단편적인 사료들을 긁어모아 누더기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빈 채로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장정(章程), 등록(謄錄), 일기, 관보, 신문 등 잡다한 자료들과 씨름하며 꽤나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내내 문제의식의 중심에 두었던 과제는 조선 후기 내재적 발전의 성과와 한계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었다. 서로 대척점에 서서 전혀 다른 근대상(近代像)을 제시하던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사이에 소통의 가교를 만들어볼 생각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조선 사회 내부에서 발전해온 자본주의의 싹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에 의해 완전히 꺾였다고 보았다. 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흔적도 남지 않는 완전한 파괴나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된다는 식의 인식은 역사학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외래적 요소와 내재적 요소는 서로 대립하고 배척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섞이거나 결합하면서 새로운 요소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개항 이후 회사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연구하면서, 조선 사회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근대화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포착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개발이 그 동력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를 마무리한 지금에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 유효한지 자신하기 어렵게 되었다. 근래 ‘근대성’에 대한 관심은 재화의 생산과 유통, 관리의 근대화보다는 개인의 몸과 의식, 일상적 사회관계의 근대화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형편에 이 책이 학계에 무슨 보탬이 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직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동학(同學)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으로 출판을 결심했다.

지난 30년 필자의 학문 인생을 이끌어주신 은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초라한 책이지만, 그래도 송구함을 무릅써야겠다. 석사과정 때 지도교수를 맡아주신 이래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를 언제나 너그럽게 품어주신 권태억 교수님, 학문은 미지(未知)의 세계에 대한 부단한 도전이라고 가르치신 한영우 교수님, 사료를 다루는 신중하고 엄격한 자세를 몸소 보여주신 최승희 교수님, 역사학은 통시적 학문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깨우쳐주신 정옥자 교수님, 학문 생활의 기본은 성실성이라는 점을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신 김인걸 교수님, 언제나 마음 한편에 필자에 대한 걱정을 담아 두신 안병욱 교수님. 여러 은사님들 덕에 어려운 속에서도 내 나뉠이로 꿋꿋하게 학문 인생을 걸을 수 있었다. 그밖에 함께 공부해온 선후배 동학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상업성 없는 책의 출판을 허락해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요즘 출판 관행에 맞지 않는 한자 투성이 원고를 필자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고쳐준 정미정 씨에게 감사드린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처지에 무모하게 역사학의 외길을 걸어
온 아들, 그것도 나이 50이 다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한 번 가져보지 못한
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송구함에 마음
이 아린다.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2011년 6월 전 우 용

차례

책머리에 5

들어가며 15

1장 개항 이후(1876~1894) 한인 회사의 성립 31

1. 회사의 출현과 정부의 식산흥업정책 33
 - 1) 회사의 출현 배경 33
 - (1) 회사에 대한 인식 33
 - (2) 구래의 상업 관행과 상업 조직 35
 - (3) 외국 상회사의 침투 37
 - 2) 개항 직후의 식산흥업정책과 관영·관독상판형 기업 40
 - (1) 관영·관독상판형 기업의 설립 40
 - (2) 관영·관독상판형 기업의 운영 실태 44
 - 3) 정부의 회사 정책 47
2. 회사의 설립과 활동 53
 - 1) 회사의 설립 53
 - (1) 회사의 설립 추이 53
 - (2) 회사의 설립 주체 56
 - (3) 자본 규모와 조달 방식 61
 - (4) 활동 범위 62
 - 2) 회사의 부문별 활동 66
 - (1) 상업 67
 - (2) 운수업 70
 - (3) 수산업 78
 - (4) 기타 80
 - 3) 외국 자본과 한인 회사 82

3. 상업세 징수와 객주회사, 수세회사 85
 - 1) 개항 이전의 상업세 85
 - 2) 개항 이후 상업과세와 수세회사, 객주회사 90
 - (1) 보부상에 대한 과세와 해상공국, 상리국 90
 - (2) 개항장 객주에 대한 과세와 객주회사, 수세회사 92

2장 대한제국 전기(1895~1904) 회사의 분화와 발전 111

1. 대한제국 전기 회사 정책의 추이 113
 - 1) 갑오·을미개혁기의 회사 정책 113
 - (1) 갑오·을미개혁기의 산업 정책과 회사 정리 113
 - (2) 국책회사의 설립 118
 - 2) 대한제국 전기의 회사 정책 119
 - (1) 대한제국 전기의 경제개혁 119
 - (2) 대한제국 전기의 회사 정책과 내장원의 회사 지배 126
2. 대한제국 전기 회사의 분화와 증가 129
 - 1) 회사의 설립과 활동 129
 - (1) 연도별 설립추이 129
 - (2) 부문별 회사의 활동 133
 - 2) 상업세 징수와 상법회사 152
 - (1) 상무회의소규례의 개정과 상업세 징수 152
 - (2) 상법회사 관리체계와 영업세 징수 158
 - 3) 도고회사와 수세회사의 난립 162
 - (1) 도고의 회사화 162
 - (2) 수세회사의 남설 169
 - 4) 외국 자본의 침투와 한인 회사 175
3. 회사 설립 주체의 변화 184
 - 1) 관료층의 회사 참여 184
 - (1) 회사 참여의 배경 184
 - (2) 회사 참여의 양상 189
 - 2) 상인층의 회사 설립 199

3장

대한제국 후기(1905~1910) 일제의 경제침탈과 한인 회사의 대응 205

1. 일제의 한인 회사 통제 207
 - 1) 일제의 화폐·재정 정리와 한인 자본 207
 - 2) 한인 회사의 권리 박탈과 일인 회사 지원 215
 - (1) 한인 회사의 권리 박탈과 「각종인허의 효력급기한에 관한 건」 215
 - (2) 일인 회사에 대한 지원 225
 - 3) 한인 자본을 동원한 '국책회사' 설립 229
2. 대한제국 후기 한인 회사의 설립과 활동 235
 - 1) 회사의 설립 추이 223
 - 2) 부문별 회사 활동 241
 - (1) 금융업 241
 - (2) 농림업 245
 - (3) 제조업·광업 249
 - (4) 상업 260
 - (5) 운수업 270
 - (6) 수산업 277
 - (7) 청부·토건업 280
 - (8) 기타 284
 - 3) 상법회사 체제의 붕괴 287
 - 4) 수세도고회사의 변질 292
3. 대한제국 후기 한인의 회사 참여 296
 - 1) 관료층의 회사 참여 296
 - (1) 고위 관료의 회사 참여 296
 - (2) 중하위 관료의 동향 298
 - 2) 상인층의 회사 참여 확대 301

4장

일제하(1911~1919) 조선회사령 체제와 한인 회사 305

1. 조선회사령의 제정과 시행 307
 - 1) 조선회사령의 제정 307
 - (1) 조선회사령과 '회사령시행규칙' 307
 - (2) 조선회사령 제정의 배경 311
 - 2) 조선회사령의 개정과 폐지 327
 - (1) 회사령시행규칙 개정(1914) 327
 - (2) 조선회사령 개정(1918)과 폐지(1920) 334
2. 한인 회사의 설립 추이 339
 - 1) 제1기(1911~1914)의 추이 341
 - (1) 설립 신청과 처분 341
 - (2) 계출회사의 처리 364
 - 2) 제2기(1915~1917)의 추이 372
 - 3) 제3기(1918~1919)의 추이 380
 - (1) 회사 설립의 급증과 자본금 규모의 확대 380
 - (2) 신설 한인 회사의 부문별 특징 382
3. 한인 회사 참여자들의 활동 양상 393
 - 1) 회사 설립 주체의 변화 393
 - 2) 한인의 회사 참여 양상 405

맺으며 413

부록 429

후주 459

참고문헌 493

찾아보기 503

Abstract 539

송기호 교수의 우리역사읽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를 거쳐 조선왕조실록까지 10여 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현실 문제와 연결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한국인의 생활사를 조명한 책이다. 동서고금의 회화에서 사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보다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1.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개정증보판)

신국판 | 반양장 | 308면 | 20,000원

2.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족과 의식주(개정증보판)

신국판 | 반양장 | 392면 | 22,000원

3. 말 타고 종 부리고: 신분세계와 유토피아(개정증보판)

신국판 | 반양장 | 396면 | 22,000원

4. 농사짓고 장사하고: 생업과 행정

신국판 | 반양장 | 416면 | 19,000원

5. 과거보고 벼슬하고: 관리의 길

신국판 | 반양장 | 416면 | 19,000원

6. 임금되고 신하되고: 임금과 보필자들

신국판 | 반양장 | 372면 | 18,000원

7. 강 넘고 바다 건너: 국가 위상과 외교

신국판 | 반양장 | 488면 | 26,000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한국 회사의 탄생사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

장정, 등록, 일기, 관보, 신문 등
방대한 자료의 늪에서
한국 회사 초창기의 전모(全貌)를
건져 올린다.

회사, 상회는 탄생 당시부터 근대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정부에서 발
행하던 『한성순보(漢城旬報)』에 「회사설(會社
說)」 등의 논설이 실리고, 일부 개명 지식인
들이 회사 설립을 주장한 것도 이 무렵부터
였다. 즉 처음 출현한 회사들에는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민간 추
진 기관'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초
기 회사는 처음부터 상당한 '특권'을 보유했
다. 정부가 회사에 제공한 '보호'는 주로 지
방관이 징수하는 무명잡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였다. 회사는 그 대가로 청부에 상납
할 의무를 졌지만, 그조차 유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본문 중에서

補助標金葉壹兩

日補助標金葉壹兩

값 30,000원



9 788952 112187
ISBN 978-89-521-1218-7